

# 경계가 텅 비면 마음이 없어진다

이것은 마치 허공에 수없이 진귀한 보배가 장엄될지라도, 마침내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써 장엄된다 하더라도, 끝내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성에 미혹하여 더더욱 못 지 못할 뿐이다.

본래 청정한 부처에게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치 아무리 귀한 보배구슬 일지라도 허공에는 머무르게 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보배구슬에 한눈팔면, 허공 같은 본성을 못 보고 더 미혹될 뿐이다.

이른바 심지법문(心地法門)이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한 성공 위에 경계에 대한 알음알이를 짓지 말라. 소위 정혜(定慧)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나 '견문각지(見聞覺知)' 등의 말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알음알이를 짓는 것이다. 입시로 중·하급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심지법문이란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만물이 대지에서 생성되듯 만법이 마음자리에서 생겨남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마음자리는 본래 청정하므로, 세상 경계에 대한 알음알이를 붙일 필요가 없다.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니 하는 쓸데없는 견해나 지으면서 공부에 장애되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에 얽매인 것이다. 법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다는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일체 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진실 된 법이란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에 속하지 않는다. 이 양변의 견해만 여의면, 곧 법이 드러난다.

## 마음을 잊어버림

9월 1일 황백선사께서 배후에게 말씀하셨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一心]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一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실 뿐 다른 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에서 법으로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곧 본원청정심(本源淸淨心)이다.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진실이 아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법, 한 부처만이 진실된 법인데, 그것은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이다. 나머지는 잡됨이 될 수가 없다. 역대 불조께서 전승해온 법이란 오직 한 마음뿐임을 분명히

##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4>



범이사 주지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있다·없다' 양변을 여의면  
곧 법이 드러난다

중생은 인연따라  
무명을 두텁게 한다

'적적성성' '견문각지'는  
하근기 위한 비유 설법

'일어나고 사라짐' 관찰하는  
관법이 공부인줄 알고

거기에 머물면

대승에 눈뜨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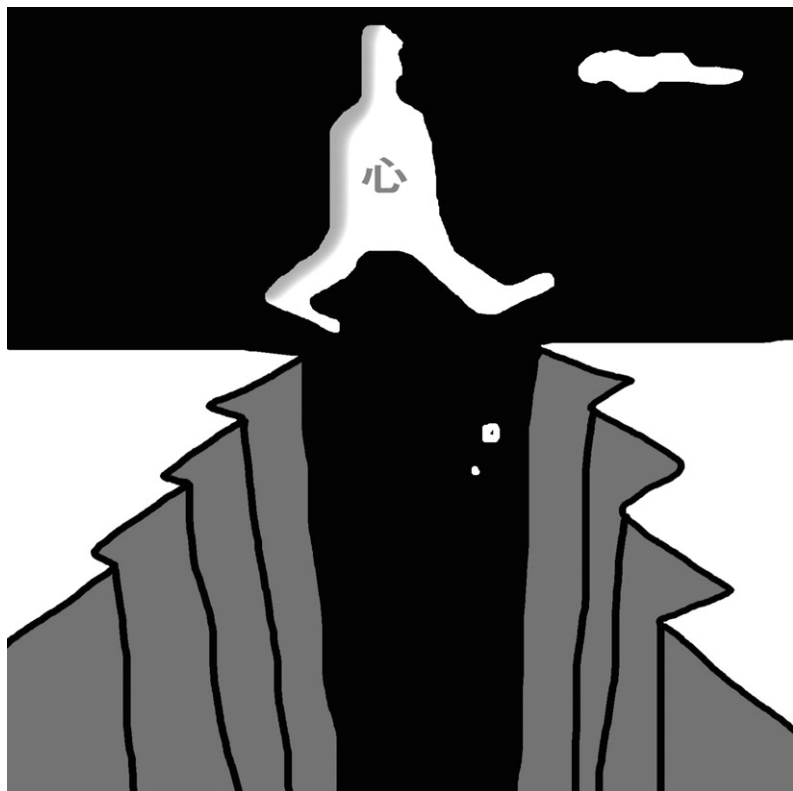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알아야 한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서, 이 지혜란 곧 무상(無相)의 본심이다. 범부는 도(道)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六情)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六道)를 떠돈다.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을 받아라고 한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로 흘러나오는 인연 따라 견문각지(見聞覺知) 하며 무명을 두텁게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생각을 헤아리면 곧 마구니의 길에 떨어지고, 한 생각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 한 생(生)이 있음을 보고 멸(滅)하려고 하면 성문도(聲聞道)에 떨어지고, 생이 있음은 보지 않고 오로지 멸만 보려고 하면 연각도(緣覺道)에 떨어진다.

한 생각 출몰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려고 하니, 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기 쉽다. 그것은 성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관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수식관, 자비관, 부정관과 같은 것들이 모두 참다운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어서, 이에 머무르면 대승의 눈을 뜨기에는 역부족이다.

법은 본시 생하지도 않고 또한 지금 멸하지도 않는다. 이 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야 한다. 일체의 모

든 법이 오직 한 마음인데, 이것이 불승(佛乘)을 이루는 것이다. 범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므로, 좋고 싫음이 생긴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며, 경계가 비면 곧 마음이 없어진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환(幻)인 몸이 멀하면 환인 마음도 멀하고, 마음이 멀하면 경계도 멀하고, 경계가 멀하면 환의 멀도 멀하고, 환의 멀도 멀하니 환이 아닌 마음은 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가떨어져, "이 마음이 바로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져다 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분별하면, 연각승에 머물러 조그마한 깨달음은 얻을지언정 보살 이상의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 수 없으니 잘 살펴야 한다.

만약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어지러울만 늘어날 뿐이다. 고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일체 만법이 다 마음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란 있을 수 없다. 홀연히 축착합착(築著?著) 결합될 때, 얻고 못 얻고 할 것이 본래 없음을 눈 열 것이다. 하지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거나 경계에 집착해서 한 번 더 느껴보려고 든다면, 모두 다 공부에 방해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방해도 일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방해 받든 말든 상관없는 불퇴전의 입장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모두 내려놓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④



###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더라도 잘못 지키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유마경>

#### <주홍글자>의 경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건너간 청교도들이 건설한 나라이다. 청교도들의 꿈은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영국에서는 실패한 혁명이지만, 이 황무지에서는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꿈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혁명의 열기에 들뜬 사람들은 역사를 새롭게 하지만 자칫 그 꿈에 속박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역시 그러했다. 어느덧 그들의 꿈이 갖는 정당성에만 집착하게 된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했다. 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폭력이 얼굴을 내밀고 만다는 것을.

이러한 모순을 직시한 사람이 작가 너새니얼 호손이고, 그런 이야기가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이다. 한 여인(헤스터 프린)이 청교도 목사와의 사이에 불륜을 범했고,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래서 가슴에 간음(Adultery)의 약자 'A'를 가슴에 달고 있다. 그 목걸이는 이제 목걸이가 아니라 형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초기역사의 청교도 공동체에서는 그들 스스로의 "청정함"을 지켜가는 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율을 지키지 못한 여인을 단죄하고, 저주하고, 낙인(烙印)을 찍어야 했을까? 혹시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스스로의 도덕적 청정성을 담보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 참으로 이들 공동체가 청정했다면, 성적인 문제 외에서도 청정함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이다.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오히려 그를 소외시키고 배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빠져있는 모순을 지적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헤스터 프린은 그러한 일을 행해간다.

#### 원효 스님의 경우

<주홍글자>에서 헤스터 프린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효 스님 역시 그랬다. 원효는 계를 잃고, 아들 설총을 낳았다. 그렇다고 해서, 원효 스님이 가정을 꾸려서 생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속북을 갈아 입고, 스스로 '소성(小姓)거사'라 칭하고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민중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권진(勸進, 권유)했던 것뿐이었다. 원효스님은 여전히 '개인'으

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 원효 스님에게, 기성 불교교단은 많은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계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효 스님 스스로도 아무런 말이 없다. 그 스스로 '소성거사'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파계승이 아니다. 나의 행위는 무아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진리 앞에서 겸허한 분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원효 스님 역시, 마치 헤스터 프린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인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았다. 허물이 있다고 비판되는 사람이, 오히려 비판하는 자를 다시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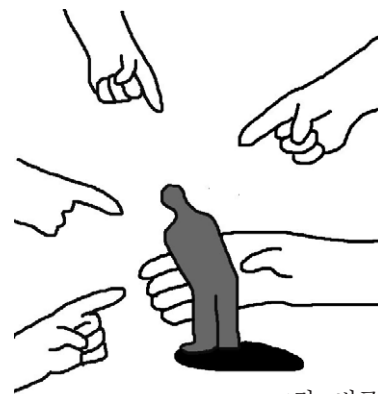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원효 스님 역시 그 일을 행한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그러한 대립적 사고를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불법을 향해서 나아가갈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런 작업을, 원효스님은 깊이깊이 행해 간다. 그 결과물이 바로 (보살계본지법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라는 책이다. 이 계율서(戒律書)는 오직 하나, 즉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율만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시한 것이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계율은, 바로 이 <유마경>의 말씀과도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유마경>에 대한 주석이나 강의를 시도했던 스님은,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뿐인 것 같다. 어느 스님이 <유마경> 경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내 과문 탓이었으면 좋겠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사)한국불교조견종 (照見宗) 창종 기념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

## 고승대덕 보살품수 수계의식

7중사 증명 범주 큰스님으로부터 보살 품수를 수계받은 자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 무늬만 불자이고 절에만 가면 무조건 불자라고 생각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비로소 거듭 새롭게 불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길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준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불성으로 승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특전 - 자신의 수행을 큰스님으로부터 점검받고 보살 법계를 품수 수계함. (의식 후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전원 증정)

※ 당일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의 소리 한마음 전국노래자랑

스트레스 우울증 화병 100% 한순간에 짝 사라지는 100세 수명장수 심리힐링 인연의 장!!!

☞ 당선도 음성공양으로 전법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인기상 : 상장 및 상금 20만원	*참가자 전원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증정

※ 찬조출연가수 : 개인, 소정 외 다수 / (사)한국불교조견종 문화예술전승무용단 MC / 한국연예인협회 부회장 안중남

※ 응시자격 : 음악을 통해 예술적, 예술적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고 삶의 진실을 찾아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

※ 특전 : 소질과 성량이 뛰어난 자는 우선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이수 후 조견종 전법가수로 활동 방송음원 제작 및 행정적 재정적 후원함.

- 신청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8일 당일접수까지

- 신청접수전화 : (예약) 010-3365-9185 / 010-9228-0622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 2리 214-4번지 (사)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신청인	성별	나이	주소	신청곡 및 가수 이름

● 주최 : (사)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      ● 후원 : MBC, 현대불교신문사, 종교세계신문사

오시는 길 (버스) : 703번(서울역,구마포) / 33번(김포공항,일산) / 14번, 12번(문선버스터미널)  
017번(마일버스 문선버스터미널 옆) : 오전 7시 5분, 10시 5분, 12시 5분. (금주 주내 - 절도착, 절출발) : 2시 20분, 4시 20분, 6시 20분.